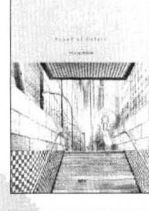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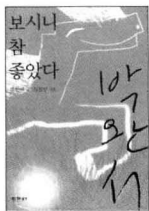


보시니 참 좋았다

박완서 글 | 김정선 그림 | 이가서 | 168쪽 | 값 9,300원 |
원로작가 박완서가 쓴 동화를 모은 책으로 최근 쓴 2편과 1970년대 말 발표했던 6편이 실렸다. 할아버지가 어릴 적 그린 성당 벽화에 관한 이야기인 표제작 〈보시니 참 좋았다〉를 비롯한 8편의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심도 있는 교훈과 삶의 철학을 전하지만 어렵게 읽히지 않는다. 화가 김정선이 컴퓨터로 작업한 20여 점의 소박한 그림도 책장마다 화려하게 펼쳐진다. 그 둘이 절친한 만큼 글과 그림은 독자들의 감상을 한층 높인다.



**옥색바다 이별 삼아
진달래꽃 베고 누워**

김영남·이청준 글 | 김선두 그림 | 학교재 | 172쪽 | 값 13,000원 |
소설가, 시인, 화가가 각자의 글과 그림을 통해 고향을 담았다. 지난날을 회고하게 하는 이청준의 고향, 사람과 이웃이 있어 정겹기만한 김영남의 고향,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는 김선두의 고향. 그 곳은 전남 장흥이다. 그들의 목소리에 웃음이 있고 이별이 있어 그 자체로도 애뜻한 고향을 느낄 수 있다.

아무도 너의 깊이를 모른다

이진영 글 | 류연복 그림 | 문학과경계 | 152쪽 | 값 7,900원 |
‘58년 개띠’ 동갑내기인 시인과 판화가가 만났다. 시집을 펼치면, 한쪽엔 판화가 한 쪽엔 시가 눈에 들어온다. 시들은 길어야 대여섯 줄이어서 읽고난 후 여운과 아쉬움을 남기지만 판화는 그 감상을 채워준다. 시집에서 판화와 시는 둘이 없으면 둘 다 없다. 책 후반부 서로에게 쓴 편지글에서도 우애를 엿볼 수 있는 그들은 출간과 더불어 ‘58개띠 생명전 아무도 너의 깊이를 모른다’의 주제로 시판화전을 가지기도 했다.

겹겹의 의도

장 자끄 쌍베 글·그림 | 윤정임 옮김 | 열린책들 | 102쪽 | 값 18,000원 |
프랑스 삽화가 쌍베의 작품집. 집, 길거리, 레스토랑 등의 공간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 ‘겹겹이’ 내포돼 있다.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던져주는 쌍베의 글은 누구나 공감하게 하는 매력 있고 대형판형을 가득 채운 그림은 깊은 철학적 울림을 전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인물들의 제스처, 대화, 행동은 현대인의 고독한 하루와 일상, 소박한 꿈을 상징한다.

워터보이

아이완 글·그림 | 아트북스 | 136쪽 | 값 19,800원 |
‘I want’를 줄인 ‘아이완’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유명저자의 첫 오프라인 단행본. 발목까지 물이 차는 작은 방에 살고 있는 ‘워터보이’라는 이름의 소년과 그의 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담았다. 삶과 철학을 던지시 던져주는 간결한 글과 부드러운 질감의 색연필로 오묘하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블루톤의 삽화는 글과 그림 이면에 감춰진 어떤 것을 찾게 하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지하철

지미 글·그림 | 백은영 옮김 | 샘터 | 128쪽 | 값 12,000원 |
중국 작가의 판타지. 지하철로 낯선 정거장을 여행하는 눈 먼 소녀의 이야기다. 서커스 단 코끼리들의 안내를 받아 바다 밑, 하늘 등 보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곳을 다니는 소녀의 여정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공간에 따라 바뀌는 삽화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유와 상상력을 갈망하게 한다. 도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현대인의 모습을 소녀에게 투영해 그린 세계가 아름답고 고독하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해

노석미 지음 | 해냄 | 198쪽 | 값 9,000원 |
화가 노석미의 열한 가지 이야기. 삶과 사랑, 꿈을 총 11개 장, 90여 편의 글과 그림으로 나타났다. 압축적인 문장과 저자 특유의 그림기법으로 사랑과 이별, 꿈에 대한 열망 등 청춘을 지배하는 주된 감정들을 담아냈다. 노씨의 글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 있다. 아이가 그린 듯 쉽고 단순해 보이는 그림은 여운을 남기는 내면의 목소리다.